

국보관

목조석가여래좌상(산스크리트어: 샤카무니)

중요문화재

이 상은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의 상입니다. 석가모니는 기원전 5 세기에 인도 북동부에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제하기로 맹세한 역사상의 인물입니다.

이 상은 계수나무를 재료로 조각한 후, 조립해 옷칠과 금박을 입혔습니다. 그 내력은 명확하지 않지만 둥근 얼굴, 온화한 표정, 얇게 새겨 넣은 옷에서 헤이안 시대(794~1185 년) 양식의 특징을 보이며, 특히 혁신적인 불상제작자였던 조초(1057 년 사망)의 불상을 방불케 합니다. 상 뒤에 있던 원래의 광배는 사라졌고 대좌는 후에 덧붙여진 것입니다.

석가모니의 오른손은 손가락을 위로 한 상태에서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이는 시무외인이라 불리는 수인의 한 형태로 두려움을 떨쳐냄을 상징합니다. 한편 왼손은 손바닥을 위로 한 상태로 무릎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. 이는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수인으로 여월인이라 불립니다. 석가모니상에는 최대한 많은 중생을 건져 올려 구제하고 싶다는 바람의 상징으로 물갈퀴를 양 손 손가락 사이에 표현하는 것이 보통인데, 이 상에는 그 물갈퀴가 특히 돋보이게 나타나 있습니다.